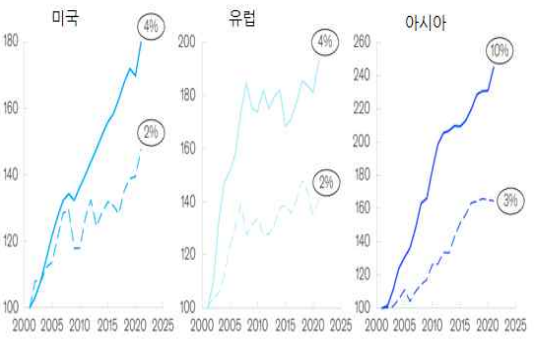
Ⅱ 동남아시아 보험시장의 특성

1. 경제성장과 보험수요

○ 경제가 저소득(Lower income) 단계에서 중소득(Middle income) 단계로 발전함에 따라 보험침투율이 급증하는 S자형 성장 패턴을 보이는데,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아세안 5는 모두 중소득 국가에 속함[1)]

- 생명보험이 주도하는 아시아 보험시장은 미국이나 유럽보다 경제성장률과 보험료성장률 간 격차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어, 그 격차만큼 아시아 보험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보여줌
- 가파른 성장을 보여주는 S커브의 가속 성장 구간에서는 경제성장이 둔화하더라도 보험료 성장은 지속하는 경향을 보이는데(SwissRe 2019), 아세안 5는 모두 가속 성장 영역에 있음
  - 가속 성장 구간에는 말레이시아와 태국이, 필리핀, 인도네시아, 베트남은 가속 성장 초입에 있으며, 공통적으로 생명보험이 주도하는 시장이고, 연간 보험료 규모가 300억 달러를 넘는 시장이 없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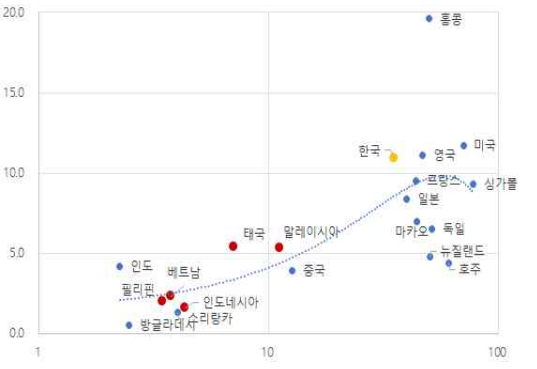
〈그림 Ⅱ-1〉 명목 GDP 및 생명보험료 성장(2000~2022)



주: 1) 2000년=100, GDP는 실선, 보험료는 점선임
2) 아시아: 20년간 연평균성장률이 -1.1%인 일본은 제외함
자료: McKinsey(2023)

〈그림 Ⅱ-2〉 보험침투율과 1 인당 국민소득(2021)

(단위: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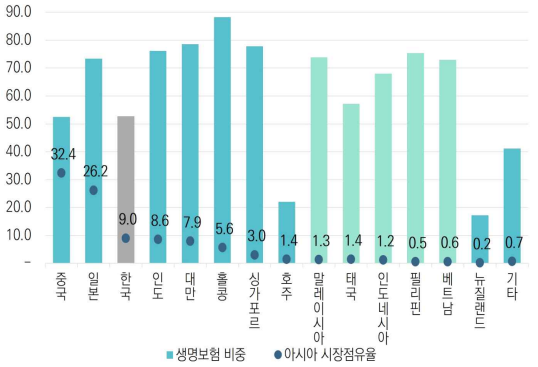


주: X축은 1인당 GDP의 로그값, Y축은 보험침투율임
자료: SwissRe(2022)

1) 세계은행은 말레이시아, 태국을 'Upper Middle Income', 인도네시아, 필리핀, 베트남을 'Lower Middle Income' 국가로 분류함

〈그림 Ⅱ-3〉 생명보험 - 아시아 비중 및 자국 비중(2021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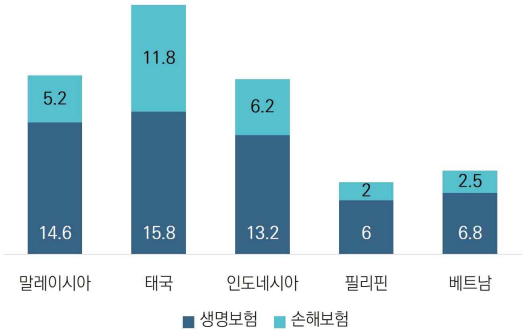
(단위: %)



주: 기타에는 마카오, 방글라데시, 스리랑카 등이 있음
자료: SwissRe(2022)

〈그림 Ⅱ-4〉 아세안 5 보험시장 규모

(단위: 십억 달러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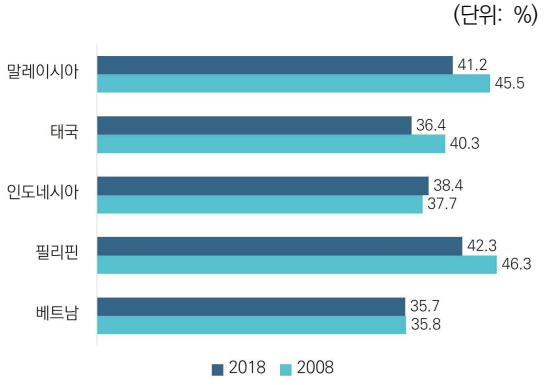
자료: SwissRe(2022)

2. 소득 불평등 개선과 도시화

○ 경제성장과 보험수요 간 정(+)의 상관관계에도 불구하고, 보험수요를 창출하는 중산층의 성장을 견인하는 소득 불평등 개선과 도시화 정도에 따라 보험시장 성장은 국가 및 지역마다 차이를 보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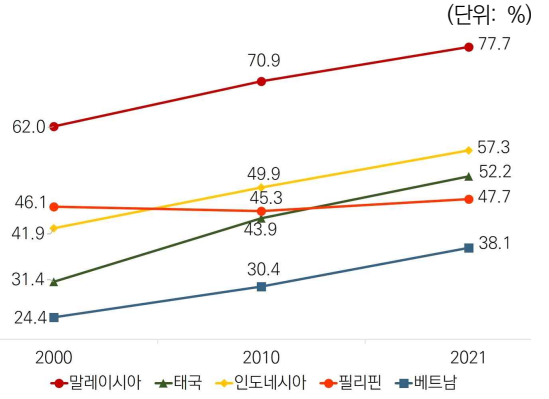
- 중산층의 소득 점유율이 높은 국가일수록 인적자원과 기반 시설의 축적이 이루어지며(방설아·강영구 2019), 더 나은 경제 정책과 도시화를 달성함(강성진 2010; Easterly 2001)
- ASEAN의 지난 10년간 소득 불평등은 전반적으로 개선됨
  - 한편, 소득 불평등 개선의 정도는 상대적으로 불평등도가 높은 말레이시아와 필리핀에서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고, 불평등도가 가장 낮은 베트남의 개선 정도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남
- 도시화는 국가 내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인구 비율의 증가를 의미하며, 고용기회는 도시화 촉진의 핵심 요소로, 중산층 성장의 기반을 제공함
  - 아세안 5의 도시인구 비중은 선진 경제 수준에 근접한 말레이시아(77.2%)부터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단계의 인도네시아(56.6%), 태국(51.4%), 필리핀(47.4%), 도시 가속화 초기 단계에 들어선 베트남(37.3%)까지 다양함
  - 한편, 농촌 인구의 도시 이동 증가율을 보면, 아세안 5 가운데 도시화율이 가장 낮은 베트남의 최근 도시인구 증가율은 3.0%로 인도네시아(2.3%), 말레이시아(2.1%), 필리핀(1.9%), 태국(1.8%)보다 높게 나타남(방설아 2021)

〈그림 Ⅱ-5〉 소득 불평등 지수 추이



자료: World Bank Data

〈그림 Ⅱ-6〉 도시화율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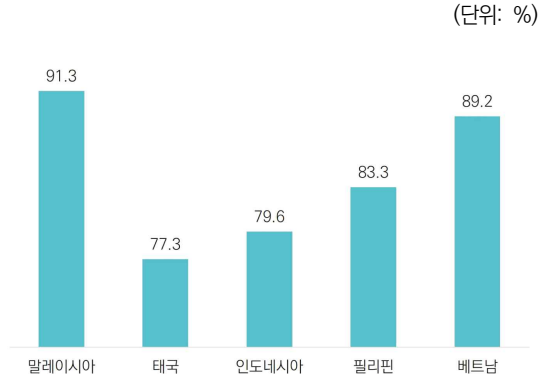
자료: UNCTAD stat

3. 인적자본, 시장 인프라와 시장구조

○ 현지 시장의 인적자본 수준과 소비자의 금융 접근성 및 금융규제 등과 관련한 시장 인프라는 국내 보험회사의 ASEAN 시장 진입방식과 보험공급의 형태를 결정하는 주요 요소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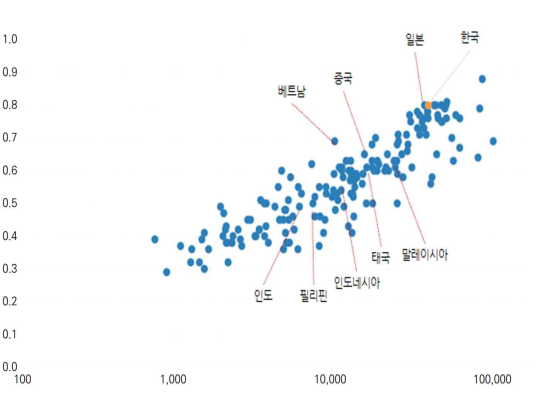
- 보험회사의 소비자 접근성 및 판매채널 구축에 필요한 인적자본 지표로서 문해율과 중등·고등교육이수 비율을 고려할 수 있는데, 아세안 5는 중등교육 참가율과 더불어 미래 인적자본 수준을 나타내는 인적자본지수도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군에 속함

〈그림 Ⅱ-7〉 중등교육 참가율



자료: ASEAN-KOREA CENTRE(2022)

〈그림 Ⅱ-8〉 인적자본지수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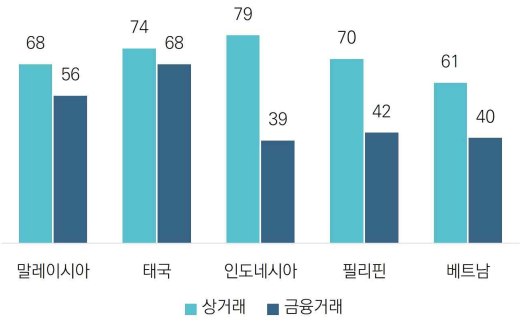
주: Y축은 태아가 18세가 될 때 기대되는 교육·건강 정도, 지수 0~1 사이의 값, X축은 1인당 GDP의 로그값임

자료: World Bank Data

- 신흥시장이 선진시장의 인프라 축적 경로를 우회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IT를 활용한 시장 인프라의 구축이며, 아세안 5 역시 금융거래에서 모바일 비중이 40% 이상을 나타냄
  - 아시아 보험시장의 경우, 전속설계사의 비중이 여전히 중요한 가운데 은행 채널의 비중은 줄어들고 GA와 더불어 온라인채널의 비중이 크게 확대되는 추세를 보임(McKinsey 2023)
  - 팬데믹을 통해 건강보험의 비대면 채널 비중이 상승하면서 보험회사의 IT 활용이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, 손해보험을 중심으로 인슈어테크 활용이 늘고 있음(Google, Temasek and Bain&Company 2021)

〈그림 Ⅱ-9〉 상거래 및 금융의 모바일 거래 비중(2020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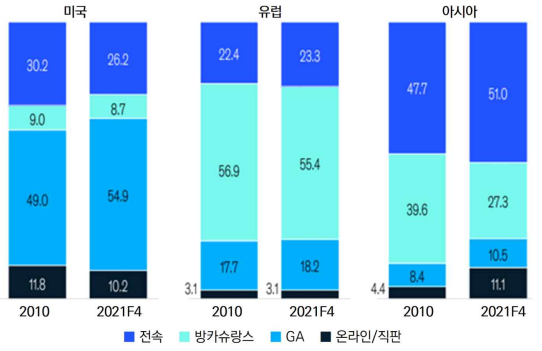
(단위: %)



자료: ASEAN-KOREA CENTRE(2022)

〈그림 Ⅱ-10〉 보험시장 판매채널 구성(2010 vs. 2021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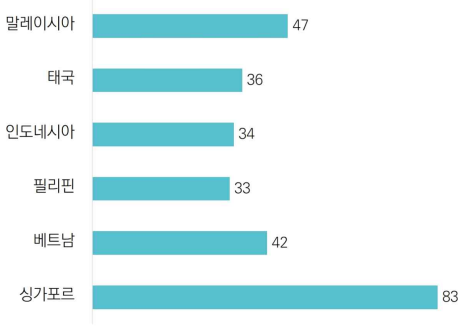
(단위: %)



주: 2021년은 예측치임
자료: McKinsey(2023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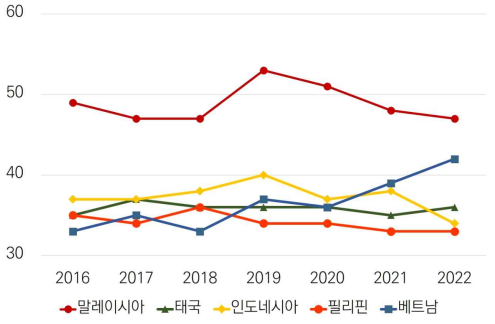
- 행정 및 규제의 예측 가능성은 보험회사의 시장 진입 및 거래비용을 낮춘다는 점에서 투명성 지표인 부패인식지수를 보면, 아세안 5 가운데 말레이시아와 베트남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고, 베트남은 최근 들어 행정과 규제의 투명성 개선이 가장 두드러진 국가이기도 함

〈그림 Ⅱ-11〉 부패인식지수(2022)



주: 지수는 0~100, 높을수록 부패에 민감한 것으로 평가함
자료: Transparency International(2023)

〈그림 Ⅱ-12〉 투명성의 변화(2016~2022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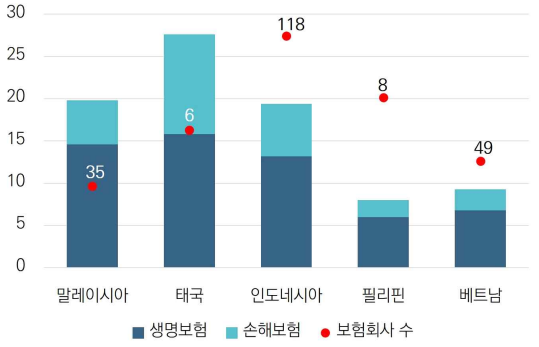
주: 지수는 0~100, 높을수록 보다 투명하다고 평가함
자료: Transparency International(2023)

○ 외국 보험회사의 시장 진입이 얼마나 활발한가는 시장구조의 경쟁도에 영향을 받는데(Ma and Pope 2003),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보험시장은 많은 보험회사 수와 높은 시장경쟁을 보임

- 아세안 5 생명보험 시장에서 상위 5개 회사의 집중도 추이를 보면 베트남, 태국, 말레이시아에서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나며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시장이 경쟁적인 시장으로 나타남
- 시장 규모에 비하여 많은 수의 보험회사가 활동하는 시장은 인허가 등 규제로 인한 진입장벽이 높지 않음을 방증하며,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모두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의 활동 보험회사 수가 가장 많음

〈그림 Ⅱ-13〉 아세안 5 보험시장 규모 대비 회사 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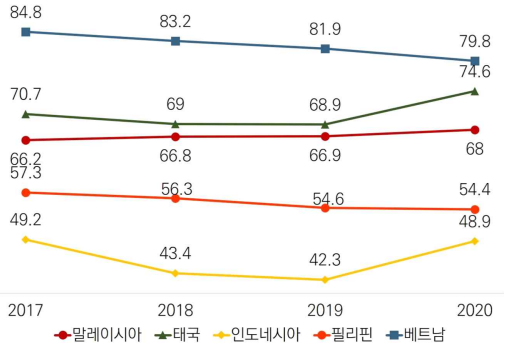
(단위: 십억 달러, 개)



자료: AXCO

〈그림 Ⅱ-14〉 아세안 5 생명보험시장 집중도 추이

(단위: %)



주: 각국 생명보험회사 시장집중도(CR5) 기준임
자료: AXCO

4. 인구구조와 사회보장제도

○ 인구 규모가 잠재 보험시장 규모를 나타내는 지표라면, 생산가능인구와 고령인구 등 인구구성 관련 지표는 보험시장의 잠재 성장과 보험수요의 내용을 예측하는 지표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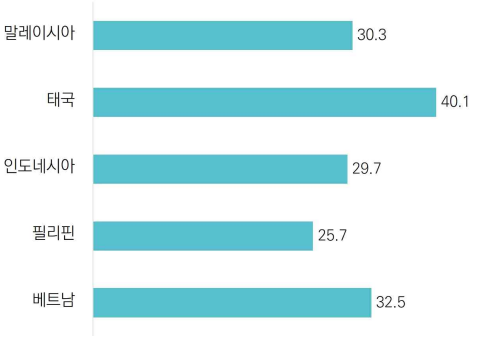
- 선진시장의 성장 경로는 소득 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초기에는 저축성 수요, 점차 보장성 수요와 연금 수요가 빠르게 증가함을 보여주는데(전용식 외 2015), 이는 새롭게 등장하는 중산층의 보장수요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음
- 가구소득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늘어나는 의료비에 대응하려는 중산층의 니즈는 사망·재해·건강 보장 수요로 나타나고, 주택 구매와 자동차 등 내구재 소비의 증가는 손해보험과 신용·보증보험 수요로 나타남(The Economist 2015; 김헌수 외 2021)
- 인구의 중위연령과 부양비율은 아세안 5의 젊은 인구구조를 보여 주고 있으나, 고령화 수준과 합계출산

율의 경우 태국과 베트남 등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 줌

- 합계출산율은 태국 1.5, 말레이시아 1.7,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2.1, 필리핀 2.7을 각각 기록함

〈그림 Ⅱ-15〉 인구구조 - 중위연령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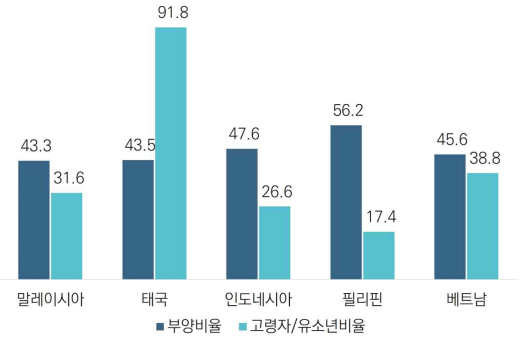
(단위: 세)



자료: World Bank Data

〈그림 Ⅱ-16〉 인구구조 - 부양비율 및 고령자/유소년비율

(단위: 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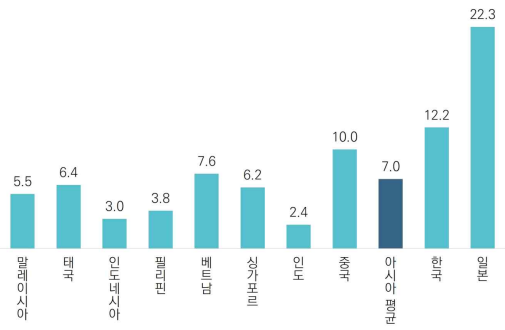
자료: UNCTAD stat

○ 건강 및 소득 보장 수요에 대한 국가별 대응은 사회보장지출과 민영보험의 조합을 통해 이루어지는데, 수출주도형 경제개발단계에 있는 아세안 5가 사회보장지출을 크게 늘리기는 어려울 것이므로(양재진 2020) 민영보험의 역할이 확대될 여지가 큼

- 사회보장지출은 베트남을 제외하고는 아시아 평균을 넘지 못하는 수준이고(ADB 2019), 향후 사회보장지출의 증가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임(The Economist 2015)

〈그림 Ⅱ-17〉 아시아 지역 사회보장지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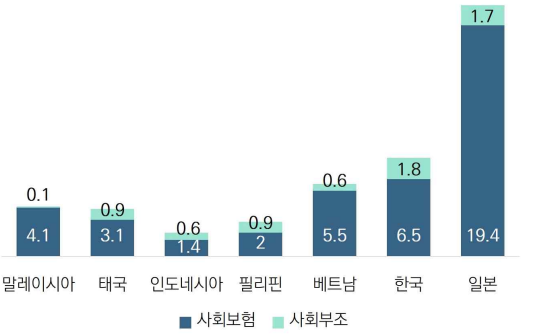
(단위: %)



주: GDP 대비 비율임
자료: OECD Data

〈그림 Ⅱ-18〉 사회보장지출 중 사회보험 및 사회부조

(단위: %)



주: GDP 대비 비율임
자료: ADB(2019)